이긴자 일대기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38회〉

4단계의 경지에 들어가면 마음과 몸 둘 다 고자가 돼

8절: 일곱째 천사가 완성자로 거듭나는 과정

1) 신앙공동체마을과 감람산 정상의 오만제단
2)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는 신앙생활
3) 마귀를 기만하는 하나님의 쇼
4) 하늘의 사람을 제거하려고 함
5)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분은 하나님
6) 신비로운 초능력을 행하다
7) 마귀 취급받으면서 자존심을 죽이는 연단

2)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는 신앙생활

(지난호에 이어서)

왜냐하면 그 교인들은 '영모님이 안 찰을 해주지 않는 것을 보아 틀림없이 마귀새끼가 분명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속단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일곱째 천사가 예배에 참석하려고 오만제단에 올라가면 안내원들이 '마귀가 왔다' 면서 못 들어가게 끌어내어 내동댕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끌어냄을 당하는 그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울화통이 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울화통이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꿀꺽꿀꺽 참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이것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서는 이길 수가 없나이다. 이 감정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꿀꺽꿀꺽 참는 단계를 수년간 거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참는 1단계를 거쳐 올라가니 습관적으로 무슨 일을 당해도 참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율율법 상에는 참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려는 생각조차 일어나려야 날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가야 그것이 완전히 이기는 단계에 해당되지, 감정이 이미 나가지고 그걸 참으려는 단계는 이미 넘어진 단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싸움에서는 처음에는 참는 단계를 거쳐야 변화가 되는 것이지 갑자기 참는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껑충 뛰어서 변화가 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그 참는 단계를 통과하는 데 십여 년 이상이나 걸렸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어떤 억울한 일에도 입에다 재갈을 물고 참고 참았던 것입니다. 섭섭한 일이 있어도 참고 '내가 왜 이런 섭섭한 일을 당하느냐?' 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는 죄인 괴수이니 마땅히 이런 섭섭한 일을 당해도 싸다!' 라고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면서 참고 넘어가니 그 입술로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참아 이 참는 단계를 지나니 그 다음에는 참아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떠오르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울화통이 터질 일을 당해도 도리어 감사한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험을 이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길 수 없는 시험을 당신께서 이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로 바꾸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2단계의 과정으로 올라가는 단계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멍청하게 시간을 보내면 다시 1단계로 떨어진다

2단계의 과정에서는 이런 일을 봐도 감사, 저런 일을 봐도 감사, 그 다음부터는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봐도 감사하고 저런 일을 봐도 감사하기에 온 몸과 마음과 그 전체를 하나님께 기울여 바치게 되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일관성 있는 생활로 돌입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생각이나 잡념이 일어나려야 날 수 없는, 초초로 주님만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고, 어쩌다가 내 주님을 잊어버리면 애걸복걸 주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기에 다른 생각이 일곱째 천사의 마음에 점령해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사 신앙촌의 오만제단과 노고산 기슭에 있는 밀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생각하는 것이 곧 마귀와 간음하는 것이요, 다른 생각 곧 잡념이 마귀 자체라는 엄청난 사실을 유사 이래 그 누구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가 되는 잡념이 일곱째 천사의 마음에 점령되어 들어오려야 올 수 없었던 것은, 시간 시간 고도로 사모하며 일초 일초 내 주님을 찾으며 일초 일초 주님과 더불어 속삭이면서 주님과 더불어 생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생활하는 일곱째 천사는 어쩌다가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범죄를 저질렀다가 되기에 한시라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썼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 단계가 3단계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단계의 과정에 있더라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멍청하게 시간을 보내는 정도가 되면, 다시 1단계로 떨어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여 입에다 재갈을 물고 어떤 감정이 나와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꿀꺽 참는 단계부터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억만 분의 일 초라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단계가 4단계

4단계는 일초 일초 내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초초로 바라봐지는 3단계로부터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주님을 억만 분의 일 초라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 얼굴이 두 눈에 박혀져 있기에 눈만 뜨면 내 주님이요,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이것을 생각하나 저것을 생각하나 항상 내 주님만 생각하게 되는고로, 이렇게 억만 분의 일 초라도 잃어버릴 수 없는 이 단계가 완전히 4단계로 접어 들어가는 단계였던 것입니다.

이 영의 싸움은 1, 2, 3, 4단계 순서껏 올라가는 것이지 막연하게 내 주님을 잊어버리고도 찾을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단계, 이것이 1학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위험한데 언제 마귀가 채어 잡아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2단계 정도는 올라가야 어느 정도 마음을 놓을 수 있지 1단계에서는 어느 때 마귀 밥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 권에 들어가야 최소한도 구원권에 섰다가 되며, '자유율법을 지켜야 구원' 이라는 말씀에 응하는 단계입니다. 자유율법을 지킬 수 있는 3단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마귀를 죽일 수 있고 은혜를 간직할 수 있으며 '나' 라는 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라는 것이 생각나려야 날 수 없고 '나' 라는 것이 의식하려야 의식할 수 없는 선상에 올라가야 겨우 3단계인 것입니다. 이 단계를 지나 온전히 '나' 라고 하는 상태를 잊어버린 단계요, 완전히 '나' 라는 것이 없는 단계 그런즉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고, 여길 보나 저길 보나 내 주님만 보이고, '나' 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제거한 단계가 곧 4단계였던 것입니다.

4단계에 접어들은 일곱째 천사는 육적으로도 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욕이 일어날 정도는 항상 지옥권에서 허덕이는 자인 것입니다. 4단계에서는 마귀가 어떻게 흐르며, 하나님의 영은 어느 속도로 움직이고, 그리고 마귀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영보다 늦게 움직이는 것을 포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른 자를 일컬어 곧 '이긴자' 라고 하며 이 이긴자의 영은 마귀 영보다 수억천만 배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고로 마귀를 때려잡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인 것입니다. 마귀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즉각 즉각 분별하여 포착하지 못하면 그 마귀를 못 때려잡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어느 층의 단계에 이르자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밀실에 들어가서 이긴자의 연단을 받고 천신만고 끝에 10단계까지 올라서는 데 성공하였는데, 이 10단계의 고지에 이른 일곱째 천사에게 '완성자가 되었다!' 라는 하나님의 인정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일곱째 천사는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정하면 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육천 년 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다시 회복한 완성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단계가 곧 10단계였던 것입니다.

3) 마귀를 기만하는 하나님의 쇼

하나님께서는 인류멸망의 시한을 앞두고 극적으로 구세주를 배출하는 데 성공하신 것입니다. 이 구세주 하나를 만드는 데 최소한 육천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담의 나이가 6천 살에 이르러서야 '나' 를 이기고 '마귀' 를 이기고 '사망' 을 이기는 완성자가 되었으며, 정확히 완성자가 된 날이 1980년 10월 15일입니다. 그리고 1981년 8월 18일 오후 3시 50분에 밀실에서 세상으로 나오셔서 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완성자 출현하는 해로부터 24년 전에 다섯째 천사를 앞세워 완성자 오실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만약에 다섯째 천사가 24년 동안 구세주 완성자의 오실 길을 예비하지 않았다면, 인간 몸을 입은 구세주의 사역은 24년의 두 배가 되는 48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게 됨으로써 인류구원의 역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다섯째 천사가 행한 24년의 하나님 역사와 일곱째 천사가 행한 24년의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영역이기에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1956년에서 1980년까지 다섯째 천사가 행한 24년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다음호에 계속)*

박한수

新金剛經解說

신금강경 해설(新金剛經 解說) 〈17〉

일상무상분(一相無相分) 第九

하나의 모양도 모양이 없다_(3)

진리란 바로 성불하는 법을 말하며, 이 법 가운데는 인간의 본래의 모습, 즉 인간이 부처님이고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본래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이치로 살펴보면 "일체중생에게 부처성품이 있다"고 하는 불교의 진리에서도 불성에 대해 세밀하고 자세하게 논의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논지가 없었던 것은 석존께서 불성에 대해 미래의 부처님이 "논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답이 없음을 보아 석존께서는 열반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석존께서 왜 금강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수보리를 통하여 이러한 법문을 하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비록 부처님의 말씀이 듣기 좋고 옳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스스로의 자유율법을 닦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실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잘못된 생활과 습관의 유혹은 집요하게 수행자를 계속 미혹하므로 고의든지 고의가 아닌 타의로 인간생활에 유혹을 잊지 못해 스스로의 계를 파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다함과입니다.

그러나 미륵부처님께서는 "인간들의 잘못된 생활과 습관이 아주 오랜 세월 이어져 지금 나에게 습관이 되었으니 어찌 쉽게 끊어지겠습니까? 이 길은 마치 마라톤선수가 목표지점을 향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인내하면서 쉬지 않고 앞으로 나갈 때 비로소 목표지점에 도착하듯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정진해서 목표지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셨듯이 수행자의 마음이 한 번의 극락체험과, 한 번은 인간의 욕심세계를 헤매게 되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다시 금강경을 보겠습니다.

須菩提 於意云何
수보리 어의운하
阿那含能作是念 我得阿那含果不
아나함능작시념 아득아나함과부
須菩提言 不也世尊
수보리언 불야세존
何以故 阿那含名爲不來 而實(無)不來
하이고 아나함명위불래 이실(무)불래
是故名阿那含
시고명아나함

"수보리야, 너의 생각은 어떠하느냐? 아나함(阿那含)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나함과를 얻었다.' 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아뢰오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이름을 '불래(不來; 다시 오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오지 아니함이 없기에 이름을 아나함이라 한 것입니다."

[해설] 이 말씀의 뜻은 실제로는 사람의 몸이 죽어서 영혼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영(靈)적인 발달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 수행에 있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煩惱)가 없어져 영의 발달이 고도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논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사람들은 영의 차원이 아닌 육체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므로 올바른 수행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등 삼계에서 영적퇴화(靈的退化)가 없음을 의미하며 다시는 인간의 의식세계에 들어오지 않는 고도의 수행 정진이 이루어진 수행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보리(須菩提)도 불래(不來)가 아나함과(阿那含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 사전에서는 아나함에 대한 뜻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아나함과에 이르렀다고 하면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제일 먼저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며, 노화가 멈추기 시작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얼굴에 항상 웃음이 머물며 모든 행동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한 형태로 변이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노화현상이 억지되고, 몸안의 피가 바뀌는 현상인데 어떤 분들은 얼굴이 동안(童顔)으로 바뀌거나 혈액형이 변하는 것을 체험·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마귀도 더욱 집요하게 수행자들을 갖은 방법으로 미혹하는데 특히 여성의 몸을 내세워, 음마(陰魔)의 공격은 상상 이상으로 수행자들을 공격하여 그 동안 갈고 닦은 것을 한 순간에 잃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륵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음란마귀는 천국의 문 앞까지 집요하게 따라와 천국 문에 들어서는 수행자를 끝없는 지옥으로 끌고 가니 여러분들은 마치 좁고 긴 낭떠러지 위의 길을 가는 수행자처럼 잠시도 방심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십니다.

불교사전: 阿那含(아나함)【범】Anagamin 아나가미(阿那伽彌、阿那伽迷)라 음역. 성문(聲聞) 4과 중의 제3. 줄여서 나함(那含), 불환(不還)、불래(不來)라 번역.

하나의 모양도 모양이 없다_(4)

須菩提 於意云何
수보리 어의운하
阿羅漢能作是念
아라한능작시념
我得阿羅漢道不
아득아라한도부
須菩提言 不也世尊
수보리언 불야세존
何以故 하이고
實無有法名阿羅漢
실무유법명아라한
世尊 若阿羅漢作是念 我得阿羅漢道
세존 약아라한작시념 아득아라한도
卽爲着 我人衆生壽者
즉위착 아인중수수자

羅漢(나한)_ 1607년 오빈(吳彬) 作

"수보리야, 너의 생각은 어떠느냐? 아라한(阿羅漢)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 도를 얻었다.' 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아뢰오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 도를 얻었다.' 고 한다면,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되는 것입니다."

[해설] 아라한이라고 하면 소승 4과 중에서 제일 윗 단계의 도를 성취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이 정도의 수행의 결과를 얻으려면 수행자의 생각은 인간의 습성이 없는 순수한 상태에 들어야 하는데 이런 상태를 무아에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아(無我)란 "나"라는 생각이 없는 순수한 선인의 경지에 들었다는 것이며, 인간세상의 번뇌(煩惱)마저 사라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明鍾